

buddhanews.com

# 지금 현재에 딱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관하세요

## 25면에서 계속

까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아까 수업이 있어서 달라고 없어서 달라고 하  
는 그런 문제가 제가 또 다른 분별심을 일으켜서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별심에도 헛  
된, 망상된 분별심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정확  
하게 보는 분별심은 그게 곧 지혜로 이르는 길인  
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수업이 나도 달라고, 수업이 안 나도 달  
라고 그렇다면 무효죠? 그렇지?

**질문자(2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붉게 익은 꽃이 피려  
면 그런 말대답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또 이차적으로 말할 때 분별은 분별입니다. 지  
금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별하되 분별이라  
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함이 없는 줄 알아야 이거예요. 맥의 육  
체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있죠?

**질문자(2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더불어 같이 생각을 하지 왜 당  
신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공(空)했는데, 그렇  
죠?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럼 공(空)로서 공심(空心)으로서  
생각한 게 아니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 자기가 생  
각한다 이런 마음 자체를 떼어라 이겁니다. 그냥  
공심에서 공생각을 한 거죠. 공심으로서 한생각  
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다는니 안 했다는니  
이런 이유가 붙을 자리가 못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랑을 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무슨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  
고, 하되 하지 말라 이거죠. 함이 없이 하라. 이 말  
을 해야 되겠군요.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산으  
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  
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섣뚱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네가  
혼자 공부하려 가겠다고 네 몸 속에 있는 생명들  
다 내놓고, 웃도 벗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땅도 밟지 말고 모든 걸 너 혼자 한다니까  
다 내놓고 너 혼자 해봐라." 이랬답니다. 그러니  
까 그 말끝에 고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 내 몸뚱이도 그렇고 모두가 일체가 들어  
아니게 같이 더불어 사는구나!' 하고선, '지켜워  
할 것도 없고 내가 바로 그 그가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안 간다 할 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  
을 했답니다.

그랬듯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써 자기가  
지어서 업이 되고, 자기가 지어써 착이 되고, 자기  
가 지어써 악행이 되고, 자기가 지어써 뛰어넘지  
못하고 이러한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

량인데 말이예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  
구하고, 당신 혼자 살아야 그게 되는 거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물을 마셨다  
고 하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고 이렇게 이유가 불  
습니까? 공생(共生)이면서 공심(空心) 공체(空體)  
공용(共用)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살벌  
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터득하고 "어디다  
가도 죽을 두지 않으면서도 어디다가도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을 가져  
라." 이런다면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정직  
하게 실천하는 자비죠.

**질문자(2남):** 그러니까 분별을 하되 분별을 함  
이 없이 하라는...

**큰스님:** 그래요. 그것도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  
왜 달마에 수업이 안 났느냐고 하고 왜 수업이 났  
느냐고 하고 이렇게 말을 지어서 해왔던 거죠. 그  
것도 말을 안 하면 상대방에서 생각을 할 수 없  
고 배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걸 또  
요사하게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망발이 되  
니까 선지식들께서 말씀들을 안 하신 거죠.

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四大)에 통신이 되지  
않고 또 건너편에 아들과 같은 뿌리에 통신이 되  
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의해서 자기 불증을 믿고,  
그 불증을 믿음으로써 자기 뿌리가 되고, 자기 뿌  
리가 됴므로써 자기 씩이 나는데 그 씩을 금감웃  
이라 그랬습니다. 금감웃, 금으로 만든 감웃과 같  
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울바로 하지  
못하시고 울바로 믿지 않으시고 마음이 급하게  
왔다 갔다만 하시고 그것을 집착하게 입력을 하  
지 못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창  
그것은 날더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스님네들  
한테 다 물어봐도 그런 일러드릴 겁니다. 안답북  
달하지 마시고 그냥 놓고 그렇게 믿으면 저절로  
될 것을 왜 그렇게들 안답북답을 해요?

**사회자:** 질문은 세 분만 있습니다.

**큰스님:** 질문 다 했다고요?

**사회자:** 예, 오늘 세 분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큰스님:** 질문도 그래요. 호텔에 가서 못 먹어보  
던 음식을 시키려 해도 먹어봤어야 맛을 알고, 맛

키고 가만히 보니까 아, 똑 두 놈이 그따위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잡지는 못해요. 마음으로 심증  
은 가는데 물증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키고 있다가 딱 목격했는데 지혜가 있는 분이  
라 돌아섰던 말입니다. 돌아서가지고선 에이, 그  
냥 회사가 아주 망하게는 훔쳐가지 않으니까 내  
버려두고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말  
입니다. 두 사람을 불렀어요. "애들아, 이상하게  
도둑을 자꾸 맞으니 너희들밖에 믿을 게 없어. 그  
러니 너희 둘이 이 도둑을 막고 관리할 해라." 이  
랬거든요. 아주 거기다 열쇠를 탁 맡긴 거예요. 창  
그 열쇠고 뭐고 그냥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도  
둑잡하던 두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열쇠를 다 맡아가고 보니까 이제 도  
둑을 맞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서부터 열심히, 뭐 자기가 도둑잡 안 하면 없  
는 거니까, 하하하. 그래 열심히 살다보니까 그  
렇게 착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도 끈기가 있어야 하듯이, 그렇게 해  
서 양쪽 사람이 다 잘 됐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밖에 없었습니까?' 하고 또 '주인공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냥 다 맡겨놓으면 잠잠을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가 있어야죠. 믿고 맡기는데, 진짜로 맡  
겼는데, 그럼 맡기면 벌써 이거는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꼭 공요를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고요, 즉 말하자면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  
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다스  
리는 선장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버려서 대뇌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  
면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죠. 사대로 통신이 되면  
각 부서에 통신이 돼요. 그리고 각 부서에 통신이  
되면 그 생명들의 의식들이 전부 다 그냥 가자는  
대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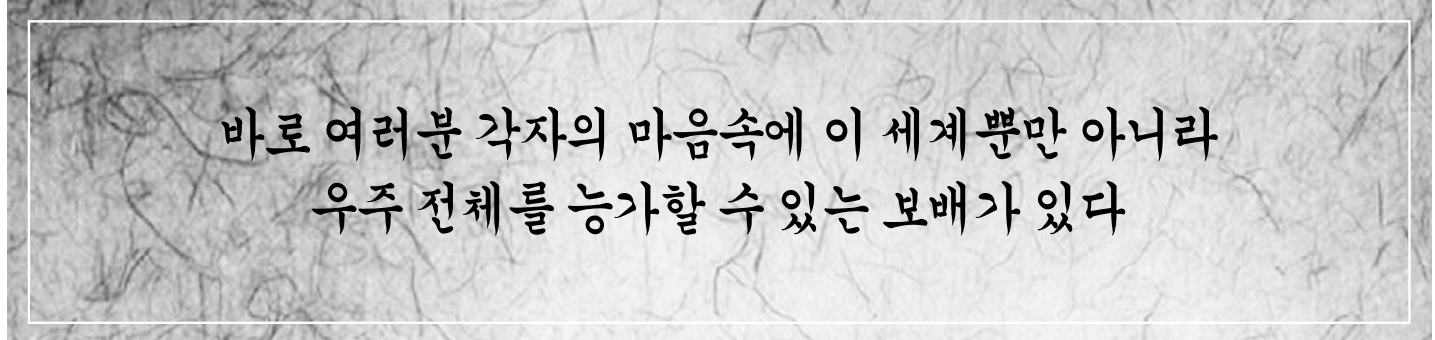
어느 신도는 도둑을 하도 맞으니까 이랬대요.  
'아유, 주인공! 나는 열쇠 다 맡겼어. 문을 아무리  
잠가봐도 소용 없으니까 주인공 당신밖에 이 도  
둑 막아줄 사람이 없어.' 하고선 잠을 자는데 아,  
잠자는데 "이거 봐! 이것 봐!" 그리고 깨우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선 일어나니까 아  
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거 봐, 저 뒷문 열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  
하하.

그래서 잠깐 놀라서 주인공에 맡긴 생각이 나  
서 나가보니까, 정말 뒷문이 열렸고 도둑이 들어  
오다가 자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다 도망갔더  
래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맡겼느냐 하면 또  
'이렇게 놀라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들이 변  
해서 여기 집어갈 것도 없으니까 아예 오지 않게  
하고 사람들 좀 놀라지 않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영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어떠한  
아량으로써 어떻게 맡기느냐에 달려있어요. 세세  
하게 어떻게 얘기를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요량껏 자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  
서든 맡겨놓고서는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진짜  
로 믿고,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 안 해요. 믿는 사  
람은 그냥 그렇게 맡겨놓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  
면 조용하면 또 생각이 나죠. 여러분 생각 속에 들  
어가보니까 그렇단 말이예요. 또 생각이 나면 또  
거기다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냥, '너밖에 할 수  
없잖아.' 하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해! 난  
너만, 너만 믿어.' 하고 그냥 맡겨놓았을 때 그때  
에 그냥 선을 훌쩍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깊숙한 데 보배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를 능가할 수 있는 바로 보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 법문은 1996년 7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저는 큰  
스님을 뵈고 똑바로 서서 삼 배 하는 게 원이었습  
니다. 원을 십 년 넘게 세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가 하다가 안 돼서  
큰스님한테 마음 한번 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  
다. 제 아들이요, 나이가 서른 여덟이거든요. 그런  
데 2학년 때부터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정신병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으로 바로잡은 지  
가 한 삼 년 됐거든요. 지금은 이 공부들 하다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 내보내도 내 아  
들만한 효자가 없을 거다 하는 감이 들도록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가 이제 제 살  
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스님께서 좀 찾아  
달라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건 날더러 할 소리가 못 됩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그릇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자기발전소에 있다고 했  
습니다. 그러니까 관하는 거 잘 배우셔서 제 나무  
가 제 뿌리를 믿어서 관하는 도리만 제대로 알고  
하신다면 자기 길을 자기가 찾을 수 있죠. 문제는  
제대로 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통신이 되

을 알아야 그 생각이 나죠. 그것처럼 질문도 먹어  
본 생각이 나와 질문을 하고 이러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그저 아들이 어떻게 딸이 어떻게 이런  
것만 머리에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었  
다면 질문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해  
결해줄 해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질  
못해서 자기가 발발발 발 뛰는 거예요. 그냥 해결  
사를 두고도, 해결사를 진짜로 믿고 맡겼으면 해  
결사가 하계끔 놔둬야 될 텐데 그걸 믿지 못하거  
지고 '애, 이거 좀 해줘!' 해놓고선 또 '뻬는 거예  
요. 그리고 또 또다가 '이거 좀 해줘!' 하고 맡겼  
다가 또 믿지 못하고 이래요. 끝까지 믿어줘야 할  
텐데 이놈의 거, 맡겼다가 뻬었다가 하니 누가 제  
대로 일을 합니까? 그러나 급하면 자꾸 생각이 나  
죠. 그러면 생각이 나는 대로 거기다 '너 알아서  
해결해!' 하고선 딱 맡기면, 맡기는 데 대해서 장  
사 없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딱 '너 이거 해라!'  
하고 맡기면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도둑을 맞아요. 언젠가도 한번 이  
런 얘기 했었죠? 자꾸 도둑을 맞으니까 주인이 지

이 그 말은 영 안 하고 나중에 한 쪽을 푹 떼어서  
이젠 독립해도 괜찮다 하고 두 사람한테 떼어서  
줬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회사가 잘됐듯  
이,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말로 꿰졌습니  
까? 예? (대중 웃음) 아까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  
로 갔죠? 진짜 믿고 맡기라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 (가슴을 짚어 보시며) 여기서 다  
못된 것을 하계끔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요. 이 몸속의 생명들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자  
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길 말고 '아이고, 몽땅 너한테 맡겨, 나는 열  
쇠고 뭐고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아예 우리집에  
어떠한 도둑도 맞지 않고 환란도 일어나지 말고  
자식들도 잘, 그저 남를 하는 대로 잘 배워서 나가  
도둑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이  
렇게 하면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사람네들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 의식들이 과거의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  
과성 유전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이 속에서 지금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열쇠  
를 다 맡기면서 '너희들밖에 없다고, 아, 너희들



## 50선지식과 함께하는 화엄산림 지장산림법회 및 조계사 2차 343일 조상천도법회

조계사에서는 343일간 원로대덕 큰스님 50분을 모시고 화엄경과 지장경을 공부하며, 선망부모에 대한 49재와 가족을 위한 구병시식을 각가 7회에 걸쳐서 봉행합니다. 이번 조계사 조상천도법회에 동참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혼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금) (음 윤 5.25) ~ 2010년 6월 24일 (음 5.13), 1~6재 매주 목요일 10시 (매회 49재 9시)**

입 재 07월 17일(음 5.25) 화엄경총설	총무원장스님	3회 3재 11월 12일(음 09. 26) 심행품	보각스님	5회 6재 03월 11일(음 01. 25) 입법계품	월파스님
1회 1재 07월 23일(음 06. 02) 세간정인품	월온스님	3회 4재 11월 19일(음 10. 03) 심무진정품	지하스님	5회 49재 03월 18일(음 02. 01) 지장경총설	묘허스님
1회 2재 07월 30일(음 06. 09) 노사나품	종하스님	3회 5재 11월 26일(음 10. 10) 여래승도술천공품	도연스님	6회 1재 03월 25일(음 02. 08) 도리천군사통품	원종스님
1회 3재 08월 06일(음 06. 16) 여래명호품	법산스님	3회 6재 12월 03일(음 10. 17) 도술천군보살찬품	해인스님	6회 2재 04월 01일(음 02. 15) 분신집회품	현고스님
1회 4재 08월 13일(음 06. 23) 사제품	종진스님	3회 49재 12월 10일(음 10. 24) 심회향품	무바스님	6회 3재 04월 08일(음 02. 22) 관중생연품	법만스님
1회 5재 08월 20일(음 07. 01) 여래광명각품	총무원장스님	4회 1재 12월 17일(음 11. 02) 심지품	일도스님	6회 4재 04월 15일(음 03. 01) 염부중생업감품	총무원장스님
1회 6재 08월 27일(음 07. 08) 보살명인품	무관스님	4회 2재 12월 24일(음 11. 09) 심명품	해남스님	6회 5재 04월 22일(음 03. 08) 지옥회품	인목스님
1회 49재 09월 03일(음 07. 15) 정행품	현각스님	4회 3재 12월 31일(음 11. 16) 심인품	무진장스님	6회 6재 04월 29일(음 03. 15) 여래천탄품	성우스님
2회 1재 09월 10일(음 07. 22) 현수보살품	도문스님	4회 4재 01월 07일(음 11. 23) 심왕보살문아수저품	자광스님	6회 49재 05월 06일(음 03. 22) 이익존량품	혜창스님
2회 2재 09월 17일(음 07. 29) 불승수미정품	해자스님	4회 5재 01월 14일(음 11. 30) 수명품	인환스님	7회 1재 05월 13일(음 03. 29) 열리왕중탄탄품	현관스님
2회 3재 09월 24일(음 08. 06) 보살명호품	정녕스님	4회 6재 01월 21일(음 12. 07) 보살주처품	지성스님	7회 2재 05월 20일(음 04. 05) 청불명호품	지선스님
2회 4재 10월 01일(음 08. 13) 보살심주품	현해스님	4회 49재 01월 28일(음 12. 14) 불부사의법품	시용스님	7회 3재 05월 27일(음 04. 12) 교량보시공덕품	혜흥스님
2회 5재 10월 08일(음 08. 20) 법행품	성타스님	5회 1재 02월 04일(음 12. 21) 여래상해품	태운스님	7회 4재 06월 03일(음 04. 19) 지신회법품	중산스님
2회 6재 10월 15일(음 08. 27) 초발심공덕품	근일스님	5회 2재 02월 11일(음 12. 28) 불소상광명공덕품	홍고스님	7회 5재 06월 10일(음 04. 26) 견문이덕품	세민스님
2회 49재 10월 22일(음 09. 05) 명법품	정휴스님	5회 3재 02월 18일(음 01. 04) 보현보살행품	향적스님	7회 6재 06월 17일(음 05. 03) 축루인천품	청화스님
3회 1재 10월 29일(음 09. 12) 불승아미천궁자재품	정무스님	5회 4재 02월 25일(음 01. 11) 여래성기품	영조스님	7회 49재 06월 24일(음 05. 10) 회향법문	총무원장스님
3회 2재 11월 05일(음 09. 19) 아미천군보살결계품	법등스님	5회 5재 03월 04일(음 01. 18) 이세간품	도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세민 합장**